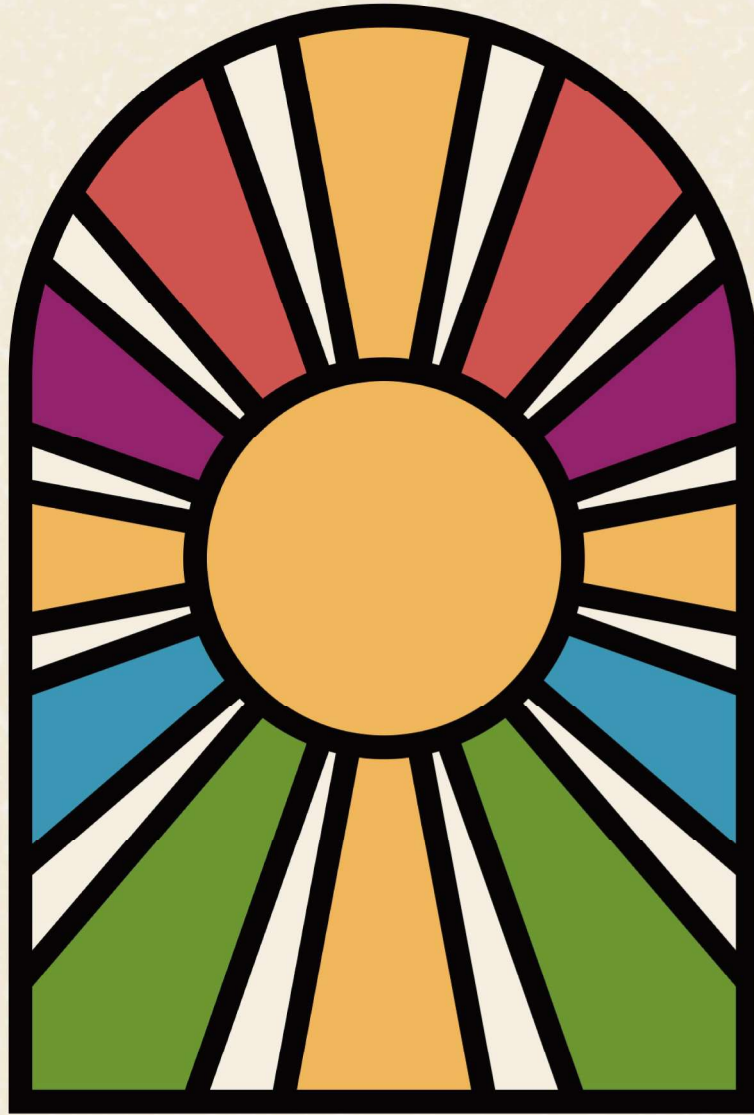


YWCA-YMCA 세계 기도 주간

2022년 11월 13-19일



빛을 발하라: 선한 영향력을 위한 기도

2023년 성경 읽기 계획





목차

3	회장들의 합동 인사말
4	소개
5	첫째 날: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8	둘째 날: 온전함에 영향을 미치기
12	셋째 날: 희망에 영향을 미치기
16	넷째 날: 책임감에 영향을 미치기
20	다섯째 날: 존엄에 영향을 미치기
23	여섯째 날: 일치에 영향을 미치기
27	일곱째 날: 연합예배
31	감사의 글
32	2023년 성경읽기 계획표



세계YWCA와 세계YMCA 회장 인사말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전 세계 YMCA와 YWCA는
여러 가지 중대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지난 2년간 발생한 이 전례 없고 불안정한 사건에 대해 반추하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 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2020년 기도주간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과 지역 사회에 빛을 비추고
회복력을 갖게 되기를 바라며 빛을 찾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신앙에 이끌림을 받은 사람으로서

또 세대간 운동체로서 우리에게 대한 재발견과 영적 성장을 위한 기회였습니다.

2021년,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거기서 배움을 얻음으로써

새로워질 수 있음을 축하하며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는 무너졌지만 재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변혁을 위한 여정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운동은 둘 다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폭력과 전쟁이 없는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으로 우리는 희망과 열망을 품고 지역사회를 위해 계속 일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올해의 기도주간을 축하하며 화합을 통해

더욱 강해지고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신하며 계속 전진합니다.

세계YMCA는 2022년 7월 새로운 활력으로 점화될 젊은 정신으로

제20차 세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세계YWCA도 동일한 정신 하에 2023년 개최될 세계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빛을 발하라: 선한 영향력을 위한 기도"는 기도수간의 주제이며

이는 세계YMCA(Vision 2030)와 세계YWCA(Goal 2035)의 장기적인 전략과제와도 일치합니다.

이는 UN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에 따라 기도하며 행동하고, 공동창조 과정을 받아들이며,

과거로부터 배우며 강함, 헌신, 회복력 안에서 화합하라는 요청입니다.

우리는 '온전함', '희망', '책임', '존엄성'이라는 가치에 기도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으며

전 세계 커뮤니티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화합과 변혁적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 주간에 전 세계 YMCA-YWCA 회원들에게 우리 삶과 지역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력을 위해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헌신하고 있는

우리 두 기관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전쟁과 폭력, 불의로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고통 받는 사람들을 함께 돌보고 행동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이 됩시다.

변화를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며 전 세계의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빛을 발하도록" 합시다.

미라 리제크 세계 YWCA 회장 | 패트리샤 펠튼 세계 YMCA 회장



소개

묵상의 일주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YWCA와 YMCA는 1904년부터 함께 세계 기도주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와 함께 2022년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지는 올 해의 기도주간에 참여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참여하시거나, 작은 그룹을 이루어 매일 함께 짧은 묵상을 하셔도 좋습니다.
기도 주간 활동은 6일간 이어지는 매일의 묵상과,
일곱째 날에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연합 예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기도책자 사용방법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매일의 묵상은 성경 읽기, 서문, 묵상과 적용, 질문 및 생각해 볼 점,
그리고 축복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시간이 있다면, 하루동안 진행할 수 있는
그 날의 창의적인 행동이나 활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임을 이끄시는 리더 분들은 먼저 책자를 읽어보시고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상 모임 내 여러 사람들에게 책자의 내용을 읽을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십시오.
(예: 성경읽기, 기도 등)

일곱째 날:

일부 YWCA/YMCA는 연합 예배로 기도주간을 마무리합니다.
소속된 지역에서 함께 예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예배 순서와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책자의 가장 뒷 부분에 2023년도 성경읽기표를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 읽기 계획에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식을 들려주세요!

준비하는 기간이 기도주간 중, 여러분의 계획이나 간증 등 개인,
또는 모임의 생각과 경험을 #WWOP22와 함께 올려주세요.

첫째 날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CLAUDIA KUHN



첫째 날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마태복음 5:13-16 (현대인의 성경)

¹³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은 아무 쓸모가 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다.

¹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잘 보이기 마련이다. ¹⁵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 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 놓아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지 않겠느냐? ¹⁶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예레미야 29:4-7 (현대인의 성경)

⁴ 전능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혀간 포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⁵ 너희는 집을 짓고 그 곳에 정착하여 과수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며

⁶ 결혼하여 아들딸을 낳고 너희 자녀들에게도 결혼을 시켜 그들도 자녀를 낳게 하여라. 너희는 번성해야 하며 쇠퇴해서는 안 된다.

⁷ 너희는 잡혀간 그 도시의 평안과 번영을 추구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나 여호와에게 기도하라. 이것은 그 도시가 평안하고 번영을 누릴 때 너희도 평안하고 번영을 누릴 것이기 때문이다.'

서문

어느 날 밤, 저는 고향에서 견고 있다가 갑자기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보통은 제가 걸던 오래된 다리를 건너면 밤에 조명이 밝혀진 언덕 위의 옛 성곽을 볼 수 있었었습니다만 그 때에는 성곽에 불이 켜져 있지 않았었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지역의 행정부서가 가을에는 전력 사용을 제한해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옛 성곽과 같은 관광지는 예전처럼 조명을 밝힐 수 없었습니다. 전력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면서도 성곽에 불이 켜지지 않은 날,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명이 켜진 성곽은 일종의 닳과 같아서 도시를 걸을 때 저의 눈은 항상 그 성곽에 끌렸었으나 이제는 디 이상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성경 해석

이 구절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말씀하신 산상 수훈의 일부입니다. 설교는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의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금과 빛의 비유를 사용하여 제자들에게 더 넓은 공동체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의 중요성과 본질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소금이 매우 귀했습니다. 로마 황제시대에 키이사르는 병사들에게 급료를 소금으로 지불했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소금에 비유한 것에는 두 가지 암시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 소금은 방부제이며 둘째, 소금은 맛을 더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빛이면서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집에서 등잔을 사용했습니다. 기름 값이 비싸서 아껴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언덕 위에 있는 도시를 상상해 봅시다. 모든 민가의 주택이 기름등에 불을 붙여 창틀에 두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 도시가 어떻게 보일 지 상상이 됩니까? 도시는 다른 무엇보다 먼저 등불로 인해 빛나는 모습으로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제자들에게 가지고 계신 비전은 어둠에 빛을 가져다줌으로써 변화에 불을 붙이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빛을 가지고 와서 지역사회를 밝힘으로써 알려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제자의 의무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삶이 번성하도록 사랑과 희망과 평화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강제로 집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의 '귀향'을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타향에 머무르게 된 것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집을 지어 정착하고, 거기에서 작물을 심고 가꾸고, 그 지역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곳에 살고, 거기에 있으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놓여있는 지역 사회에 참여하도록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곳, 이 도시를 위해 기도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첫째 날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지역 사회에 어떻게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이 지역 사회의 사람들과 소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지, 무엇을 심어야 하는지 질문하고 있습니까?

저는 YMCA와 YWCA가 주변 지역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좋은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와 몰다비아 YMCA가 생각납니다. 다른 많은 YWCA/YMCA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변 지역 사회의 필요에 응답했습니다. 독일 동부의 농촌 지역에 있는 작은 YMCA가 떠오릅니다.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더 큰 도시로 이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그들은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여 가족 및 어린이들과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참여를 통해, 그 지역사회의 가능성은 변화되었습니다.

이 두 구절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제자 정신의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을 상기시킵니다. 첫째,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가 속한 지역 사회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이 됨으로써 지역 사회의 변화에 불을 붙이고 사람들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완수하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관계를 세우는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고 가꾸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기간에 걸친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으로, 그리고 YMCA/YWCA로 보내어 변화를 일으키게 하신 의미를 묵상합시다.

묵상해볼 점

- 당신의 지역 사회 안에서 당신이 봉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곳은 어디인가요?
- 당신의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 당신이 지역 사회의 삶에 깊이 뿌리내리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나요?
- 지금 당신이 빛을 가져다 줄 한 사람은 어디에 있나요?
- 당신은 당신의 삶 속 어디에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바라고 있나요?

축복기도

주 예수님,
 우리 삶의 빛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화와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화와 새로운 가능성을 갈망하는 지역사회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사람들과 지역 사회를 위한 변화의 불을 붙일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당신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희망과 영감과 힘으로 채워 주세요.

아멘

둘째 날



온전함에 영향을 미치기

DORI GORMAN



요한복음 5:1-9 (현대인의 성경)

¹ 그 후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² 예루살렘 양문 곁에는 히브리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고 그 둘레에는 행각 다섯채가 서 있었다. ³ 이 행각에는 많은 환자, 소경, 절뚝발이, 손발이 마비된 사람들이 즐비하게 누워 (물이 움직이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⁵ 그런데 거기에 38년 동안 앓고 있는 환자가 있었다.

⁶ 예수님은 그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자 병이 벌써 오래 된 줄 아시고 그에게 '네가 낫고 싶느냐?' 하고 물으셨다. ⁷ 그러자 그 환자는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⁸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하시자 ⁹ 그는 곧 병이 나아 자리를 거둬 들고 걸어갔다. 그런데 그 날은 안식일이였다.

서문

매주 제 딸의 교장선생님은 저에게 초등학교의 상황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 줍니다. 최근에 그는 학교 상담원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공유해 주었습니다. 교장선생님은 "평년에는 상담원들이 한 학기에 4~5개 그룹을 관리합니다. 그런데 올해 첫 9주 동안에만 상담원들이 13개 그룹을 관리했고, 오늘까지 374회 개인상담, 162회의 단체 상담을 진행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며 "우리 아이들이 힘든 상태군"이라는 생각과 동시에 "우리 어른들도 모두 감정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다 큰 어린이들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자녀들은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나에게 알려줍니다. 감정의 근원이 무엇인지 항상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감정을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많은 아이들이 정서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괜찮습니까? 온전함을 위해 이 아이들에게서 교훈을 얻어 정신적, 정서적, 영적 건강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성경 본문 해석

템플 마운트 지역의 바로 북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위치한 베데스다 연못은 현대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굴되어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치유의 장소로 알려져 있었지만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신앙에 관계없이 사람들은 이곳을 신성한 장소로 여겼으며 한때 치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바쳐진 곳이라는 증거도 있습니다. 치유의 물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궁금하다면 John for Everyone의 NT Wright의 설명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물은 주기적으로 거품을 일으키는데 그 때 처음으로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를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품이 나는 물이 천사에 의해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4절'이 없는 이유는 몇몇 고대 복음서의 사본에는 이에 대해 설명하는 추가 구절이 있지만 대부분의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행히도, 연못의 치유하는 물은 적어도 그토록 오랫동안 치유받고 싶어했던 한 사람에게만은 효과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오시고 이야기는 반전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치료하실 뿐 아니라 그 장소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은 거기에 있던 모든 이들을 치유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온전함이라는 것은 하나의 부족이나 일부 그룹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모든 이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남자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서 38년 동안 누워 있던 병자와 놀라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일어나라'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부활'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낫게 되고, 부활을 경험하고, 일어나서 우리 삶에서 치유와 온전함을 찾기를 갈망하십니다.



둘째 날

온전함에 영향을 미치기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은 이 남자의 고통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상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일까요? 자유를 향한 여정(- Journey to Freedom)에서 저자 스콧 리얼(Scott Real)은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남자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38년 동안 연못가에 누워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는 자신이 낫기를 원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분은 '치유가 네 삶을 바꿀 것이다. 너는 먹고 살기 위해 직업을 구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워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치유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기 위해 취해야 할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어떤 점에서 치유와 성장에는 구체적인 단계가 필요합니다."

저는 자주 제 삶의 온전함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 정신 건강, 영적인 삶, 정서적 성숙, 신체적 건강 등 무언가를 개선해야 하지만, 실제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일관성이 있는 구체적인 행동까지 실행하지 못합니다. 잠시 동안 무언가를 시도하기는 하지만, 나에게 유익한 습관들은 서서히 없어지고 나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되며 나의 기분은 더 나빠지게 됩니다. 38년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어떨 땐 그만큼 길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삶의 어떤 영역에서 "일어서야"합니까?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볼 때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종교적 배경이나 영적 관점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의 온전함에 영향을 미치기를 갈망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같은 질문에 답할 기회가 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당신의 대답이 "예!"라면 우리는 "일어서서" 치유의 영, 마음, 몸을 향해 나아가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 기도하면서 생각해 봅시다.

묵상해볼 점

- 전인적인 건강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 인생에서 한 가지를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요?
- 이러한 변화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은 무엇인가요?
- 그리스도께서 친히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요?
- YWCA/YMCA가 지역사회의 온전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지역사회에서 어떤 장벽을 제거해야 하나요?

축복기도

기도하러 올 때 다음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활동을 끝내고 휴식의 순간, 일시 정지의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활동하고, 흥분하고 시간이 빨리 가는 많은 일을 계속 하는 데에는 이상한 마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의 마법입니다. 이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됩니다.

멈춤의 순간, 쉬는 순간에도 나름대로의 마법이 있습니다.

온전함을 향한 내적인 강조가 있을 때, 그 순간 고요함의 경험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은 두려운 선언입니다. "내면의 흩어진 부분들을 모두 모아서 당신의 의식으로 끌어올리십시오. 지금은 함께 할 때입니다. 거룩한 지점에 집중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 없이는 삶의 의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일시정지의 순간, 신의 비전, 하워드 서먼)



둘째 날

온전함에 영향을 미치기

이제 조용히
주님께 집중합시다.
조용히

기도:
생명수를 주시는 하나님, 나의 온 존재를
새롭게 하시고 나의 비전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창의적 행동 및 활동

당신 삶의 온전함을 위해 당신만의 개인적인
변화 계획을 만들어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Scott Reall의 Journey to Freedom의
Day 35-3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위한 나의 계획 _____
날짜 _____

1. 잠시 기도를 한 다음, 오늘 당신의 영혼과
마음과 몸은 어디에 있는지에 가장 솔직하게
평가를 작성해 보세요.

2. 각각에 대해 하나씩 구체적인 목표를
작성해 보세요:

영혼

마음

몸

3. 위에서 세운 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세요.

영혼

1.

2.

3.

마음

1.

2.

3.

몸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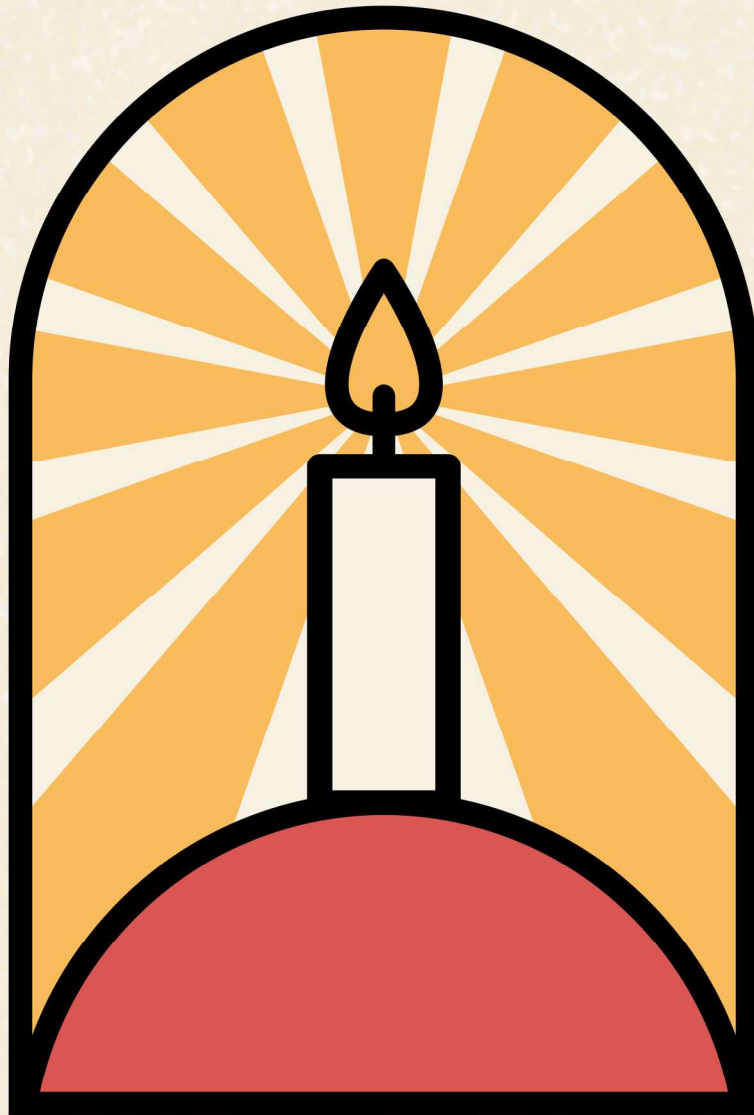
4. 당신을 지지해 줄 수 있는 팀을 적어
보세요. 당신이 이러한 목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고 온전함을 향한 여정에서 당신을
지지할 수 있는 특정 사람들이 당신의 지원
팀일 것입니다.

5. 기도하는 마음으로 응답을 작성해 주세요.
이러한 변화가 생겨나면 내 삶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6. 매일 사용할 기도문을 작성해 주세요.
다음은 하나의 예시인 평온을 구하는
기도(Serenity Prayer)입니다.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셋째 날



희망에 영향을 미치기

NNAETO ONWUZURUMBA



예레미야 29:11-13 (현대인의 성경)

¹¹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번영을 주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계획이다. ¹² 그때에는 너희가 나에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것이며 나는 너희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¹³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마태복음 20:1-10, 16 (현대인의 성경, 개정개역)

¹ '하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아침 일찍 일꾼을 구하려고 나갔다. ² 그는 일꾼들에게 하루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하고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 보냈다. ³ 9시쯤 되어 다시 나가 보니 일거리가 없어 장터에서 놀고 섰는 사람들이 있었다. ⁴ 그래서 주인이 '너희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일한 것만큼 샅을 주겠다.' 하자 그들이 포도원에 갔다. ⁵ 주인은 12시와 오후 3시에도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⁶ 오후 5시에도 나가 보니 여전히 일거리가 없어 섰는 사람들이 있었다. '너희는 어째서 하루 종일 여기서 놀고 섰느냐?' 하고 주인이 물자. ⁷ '우리를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래서 주인은 '너희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였다. ⁸ '날이 저물자 주인은 포도원 감독에게 '일꾼을 불러 나중 온 사람부터 차례로 품삯을 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⁹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기에 ¹⁰ 먼저 온 사람들은 좀 더 많이 받을 줄로 생각했으나 그들도 한 데나리온밖에 받지 못했다. ¹⁶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서문

故 데스몬드 음필로 투투 대주교는 한때 자신을 '희망의 포로'라고 표현했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시기에 우리 모두는 자신을 '희망의 포로'로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세계 질서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희망에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희망이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는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희망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이신 하나님에게서 그것을 찾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은 극심한 고난과 깊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안과 확신을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는 잔혹한 침략과 그로 인해 고향에서의 떠나게 된 나라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정치적, 경제적, 그 밖의 차원에서 정체성과 뿌리를 잃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 우리가 많은 나라에서 목도하게 되는 흔하고도 현실적인 우리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공격적인 이웃에게 포위당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여성과 여성의 권리를 억압하는 강압적인 정권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일부 지역은 홍수로 황폐화되어 사람들은 극심한 빈곤에 빠졌습니다. 에티오피아는 내전의 고통으로 목살을 앓고 있습니다. 동시에 나이지리아와 서아프리카의 다른 지역들은 급진적 근본주의자들로 인해 내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공급이 줄어들고 있고 유럽 전역에 광범위한 인플레이션이 감지되고 미국에서는 심각한 사회정치적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극심한 빈곤과 실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력 범죄는 중남미의 많은 지역을 황폐화하고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향해서 환영받지도 못하는 곳으로 이주해야 할 처지가 됩니다. 미국에서는 학교에서의 총기난사 사건이 자주 발생합니다. 지금 세상에는 희망이 별로 없어 보이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해석과 적용

이 구절은 우리가 개인, 가족, 국가로서 씨름하는 많은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인식과 우리를 번영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는 미래는 고난 속에서 단순히 존재하며 생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에 대한 약속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우리보다 앞서 거기에 계심을 알기에 담대히 내일을 바라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희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재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예레미야 29:12-13).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비유는 우리에게 매우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이 생산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소비주의의 준거와 문화의 틀로 본다면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소비주의는 사람들의 가치를 그들이 가진 경제적, 사회적 자본으로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특히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생산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이 신성한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환영받으며 결점이나 실패에 관계없이 우리의 이야기는 선하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서아프리카 이그보족의 옛 속담 "mgbe onye ji tete ura bu ututu ya"는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깨어날 때마다 아침이 된다'라는 뜻으로, 삶의 여정이 때로 개인적이고 외롭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결국 풍요롭게 번성하기를 바라시며,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써 우리가 갖고 있는 희망의 성경적 바탕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설명할 수 없는 사랑,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주권, 그리고 우리가 그 과정에서 만나는 경이로움의 기초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포도원 일꾼의 비유는 하나님을 포도원 주인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막대한 능력과 자원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주인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원을 의미 있는 일을 원하는 일꾼들을 위해 기꺼이 사용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주인이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는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희망은 사람들과 그들이 지닌 엄청난 잠재력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단기 또는 장기 실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우리 지역 사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시고 적시에 의미 있는 일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이 용기를 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지 않거나 고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속삭이는 내면의 비평가에게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내면 깊은 곳에 가치 있는 무언가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포도원 주인은 한 발 더 나아가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주인의 행동과 신의 섭리가 동시에 존재함으로써 희망이 생깁니다. YMCA/YWCA의 활동은 기쁨과 평화를 통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소망의 하나님'(로마서 15:13)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활동가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돌보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전달자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은 사람과 지역 사회를 고양시키는 데 집중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일꾼들로부터 배울 것이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는 시간과 정해진 급료에 상관없이 주어진 임무를 완료하기 위한 헌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의 이 이야기는 우리가 본받을 예시를 보여줍니다.



셋째 날

희망에 영향을 미치기

묵상해볼 점

- 우리는 냉소적인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볼 것인가 아니면 희망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 우리가 희망을 통해 일을 함에 있어 온전함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우리가 희망의 근원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오늘날 우리가 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축복기도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희망이며 우리는 당신께 매달립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계속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삶의 거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당신에게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위태롭고 불확실한 시대에도 격려와 확신을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 지역 사회, YMCA/YWCA가 당신의 변함없는 언약에서 위안과 안식과 힘을 찾도록 해주소서. 항상 희망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과 그 이상을 위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의적 행동 및 활동

1.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나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는 노래를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주세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게시해도 좋습니다.
2. 당신의 삶에서 희망을 잃을 뻔했던 특정 시기(개인적으로 또는 YMCA/YWCA에서)를 회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떤 격려를 받아 그 암울한 순간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작성해 주세요. 이때 당신의 희망의 원천은 무엇 또는 누구였나요? 당신이 신뢰하는 사람 또는 사람들과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3. 혼자 또는 YWCA/YMCA 동료들과 함께 촛불을 켜고 사진을 찍어 주세요. 희망은 결코 좌절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요.

넷째 날



책임감에 영향을 미치기

MURIEL MONTENEGRO



책임감에 영향을 미치기

창세기 1: 26,28 (현대인의 성경)

26 그리고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28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많은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마태복음 6:9-10 (현대인의 성경)

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10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서문

2022년 7월, 세계YMCA연맹 총회는 Vision 2030을 발표했습니다. 4개의 주요 비전 중 하나는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드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YWCA의 #Goal2035는 정의와 평등이 가득한 포용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청년들의 리더십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세계YWCA는 비전선언문에서 환경에 대한 자유와 보살핌이 증진되고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책임을 통해 영향력을 창출하는 데 집중하고 기도합니다. 사람과 지구를 돌보는 것은 이윤창출이 중요시되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유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2021년 특별 보고서에서 계속해서 1.5°C씩 지구 온난화가 발생하는 경우 모든 지구 생명체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지구 온난화를 최소 1.1°C로 제한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 홍수, 폭염, 화재, 빙하와 빙상의 용융, 영구 동토층의 비가역적 해빙, 해양 온난화, 산성화 및 탈산소화와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현재의 기독교가 우리 대부분이 알고 있는 기독교의 청지기 직분에 대한 개념만으로는 지구의 환경악화에 대해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청지기 직분의 개념을 재구성하기 위한 대안적인 성경 개념이 있습니까?

해석과 적용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자연과 인간(하와와 아담)을 창조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26-28을 주의 깊게 읽으면 본문에 "청지기"라는 단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용된 용어는 히브리어 동사 radah(지배)와 kabash(제압하다)이며, 이는 창조에 대한 권세를 나타냅니다. Kabash는 속박하다, 정복하다, 복종시키다, 짓밟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성서의 에스더 여왕 이야기에서는 같은 용어가 "여자를 강제로 취하다"(에스더 7:8)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강력하지만 가혹한 두 단어는 인간에게 지구를 지배하고 지배할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오랫동안 사용되었습니다.

청지기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는 멜자르입니다(단 1:11, 16). 멜자르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후견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합니다(창 15:2,3). 멜자르와 달리 지배와 정복은 무력, 침략, 폭력을 일으키며 이는 청지기의 본질인 중, 수호자, 수탁자로서의 성질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직분을 지배와 정복으로 잘못 해석하게 되면 성경의 텍스트를 인간중심적으로 읽게 되고 이를 근거로 인간은 정복자의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인간의 행동은 이제지질학적



책임감에 영향을 미치기

지구 파괴의 시대인 인류세(anthropocene, 인류가 지구 기후와 생태계를 변화시켜 만들어진 새로운 지질시대를 뜻함)를 가져왔습니다.

멜자르의 개념이 책임 있는 청지기 직분의 모델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헬라어 단어인 오이코스(Oikos)를 사용하는 신약성서에서의 개념이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이코스는 히브리어 바이트(bayith)와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예: 권속(집), 인간 및 동물의 거주지). 이 단어의 많은 어원이 같은 말 중 오이쿠메네(oikoumene)이라는 단어는 거주에 대한 더 넓은 관점을 제시하여 서식이 가능한 세계, 거주 가능한 지구를 뜻합니다. 모든 지구생명체들은 지구에서 거주하며 살아갑니다.

오이코스의 또 다른 어원이 같은 말로는 오이코노모스(oikonomos)가 있는데 이 단어는 집(오이코스)을 돌보는 사람, 관리자 또는 자원을 동등하게 분배하는 수탁자라는 뜻입니다. 사용 가능한 자원의 신중한 관리 및 관리를 실행하는 시스템을 뜻하는 단어는 명사인 오이코노미아(oikonomia)입니다.

안타깝게도, 제2 바울 서신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모든 생명체가 상생하는 장소를 만들어주신 것으로 파악하는 오이코스의 포용적 관점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하느님의 집"임을 나타내기 위해 오이코스의 의미를 제한했습니다. 이러한 배타적 발전은 모든 지구생명체들의 거주지로서의 오이코스의 이미지를 희석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간과자연의 관계성에 대한 감각은 우리의 관심사에서 밀려났습니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집의 청지기이자 관리자로서의 오이코노미아를 기억에서 지웠습니다. 오이코노미아는 사업과 이윤을 위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소비에 국한된 경제적 개념으로 축소됩니다.

지구는 이윤을 추구하는 인간에게 지배당하는 처지가 되고 결국 지구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2,000년의 홀로세(Holocene, 지질시대에서 제4기의 최후의 시대로 1만년 전으로부터 현재까지 해당하는 시대) 기간 동안 안정적이었던 기후는 대기, 지질, 수문, 생물권 등 지구 시스템의 급격한 변화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이제 인류세를 정의하는 인위적 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모든 지상의 생명체를 평등하게 보는 오이코노미아의 본질은 사라졌습니다. 집을 돌보는 관리자로서의 책임감 있는 오이코노모스의 개념도 상실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은 지배와 정복의 개념을 넘어서, 책임 있고 능동적인 청지기 직분을 향한 윤리적 자세로 전환하기 위한 대안적인 성경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합니다. 오이코노모스의 또 다른 이미지는 오이코도모스(oikodomos)인데 이는 사랑의 행동과 말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개발하고 재건하고 계몽하고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오이코도모스는 관계를 회복시키고 아름답게 합니다. 이것은 지배와 예속의 죄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탐욕 추구 성향을 억제할 것입니다.

오이코노모스-오이코도모스의 윤리적 틀을 통해 사회와 지구 공동체와의 단절된 관계에 회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이코노모-오이코도모스 패러다임은 지구의 보살핌, 정의, 치유를 위한 행동에 나서라고 우리를 고취시킵니다. 이 패러다임은 인류가 지구와 지구인을 모욕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계획에 맞서는 생물학적(Biophilic, 생명사랑 또는 생명친화를 뜻하는 Bio와 우정과 사랑을 뜻하는 Philia의 합성어) 윤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청지기성으로 웰빙, 완전성, 번영, 온전함을 아우르는 중대한 살림의 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이코노모스-오이코도모스의 이 청지기 직분 프레임워크는 멜자르의 개념을 통합하여 지구를 섬기고 보호하도록 합니다. 지구에 생명 긍정의 영향력을 미려면 인류가 회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견고한 믿음, 품성,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현실로 만드는 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묵상해 볼 점

- 당신의 생활 습관과 삶의 방식을 평가해보고 지배(kabash) 또는 정복(radah) 개념의 청지기 모델에 따라 생활한 점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 오이코노모스-오이코도모스의 청지기 체계가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된다면 또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각각 무엇인가요?
- 개인으로서, 그리고 기관(YMCA/YW-CA)으로서 책임감 있고 능동적인 청지기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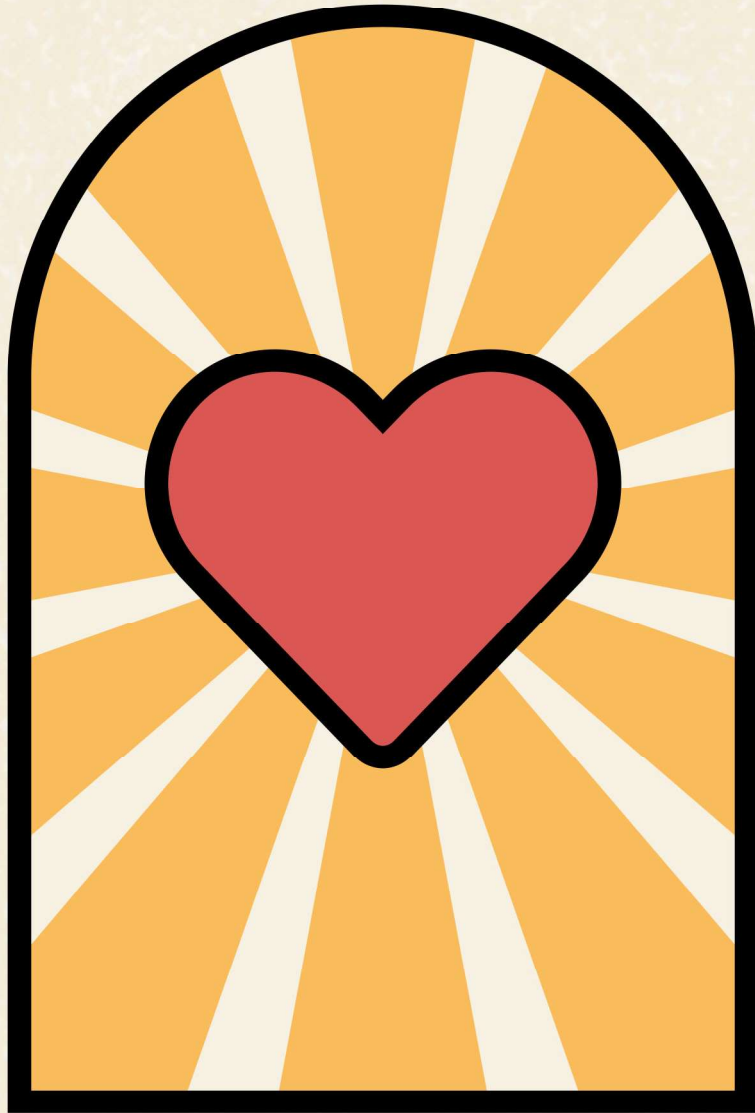
축복기도

오 정의와 공정의 하나님, 지구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구를 파괴하는 우리의 사악한 태만과 공모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방식을 바꾸고 책임감 있고 능동적인 청지기가 되기 위해 애쓰는 우리의 노력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지구의 회복과 치유의 대리인이 되어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의적 행동 및 활동

1. 친구와 가족을 모아 벌목된 지역에 묘목을 심고 나무를 가꾸기 위한 행동 계획을 세워 보세요.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묘목이 큰 나무나 숲으로 자랄 때까지 돌보아 주세요.
2. 식단을 계획해 보세요.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발자국이 적은 식품을 먹어요. 예를 들어 쇠고기 생산은 탄소 발자국이 높습니다. 대형 심해어를 잡는 과정은 탄소 발자국이 높습니다. 잡을 때 탄소 발자국이 적은 작은 부어(해표 가까이 유명한 어류)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3. 창세기 1:26-28 외에 청지기 직분에 대한 성경적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기적으로 스터디를 해보세요.

다섯째 날



존엄에 영향을 미치기

SOLOMUZI MABUZA



미가 6:8 (현대인의 성경)

⁸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다. 그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옳은 일을 행하며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다.

누가복음 18:1-8 (현대인의 성경)

¹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언제나 기도하고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²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³ 그리고 그 도시에는 한 과부도 있었는데 그녀는 자주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자기 원수를 갚아 달라고 애원하였다. ⁴ 재판관은 얼마 동안 그녀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고 있다가 마침내 이렇게 종얼거렸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도 ⁵ 이 과부가 계속 나를 성가시게 하니 내가 그녀의 간청을 들어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여자가 계속 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⁶ 그리고서 주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옳지 못한 재판관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⁷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백성이 밤낮 부르짖는데 원수를 갚아 주시지 않고 계속 그대로 두실 것 같으냐? ⁸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 주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서문

이시 줄루(isiZulu)어의 경이로운 표현인 "Umuntu ngumuntu ngabantu"(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는데 기초가 되는 우분투(Unbuntu)의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독교 주창활동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유사한 표현은 남소토족(South Sotho) 언어의 "Motho ke Modimo"라는 표현으로, "인간은 신이다(신성하다)"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의 핵심은 존엄성이란 경건하고 신성한 것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확인하고, 향상시키며 보호하는 것은 다양한 종교를 아우르는 주제이며 보편적 인권의 핵심입니다.

가장 소외되고 취약한 사람들의 존엄성이 침해됨은 우리 시대의 도덕적 재앙입니다. 우리는 많은 주창활동을 통해 모든 형태의 인간 존엄성 침해를 종식시켜야 함을 계속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목요일은 이전에 불우했던 종교 공동체에서 종파를 초월한 기독교 신앙의 여성들을 위한 기도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러한 관행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매단체인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와 세계YWCA가 벌이는 # 검은목요일 캠페인은 강간과 폭력이 없는 세상을 위한 세계적인 운동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는 삶의 영역에서 이러한 운동의 핵심에 있는 약속을 이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성경본문 해석

선지자 미가와 전도자 누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요구하시는 것과 21세기 YMCA와 YWCA의 역할에 대해 일깨워줍니다. 미가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정의와 사랑, 친절을 실천하면서 창조주와 겸손하게 동행하기를 요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와 그릇으로서 우리는 두려움이나 편견 없이 세상의 모든 선을 옹호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미가의 내용과 이번 기도 주간과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르치시기 위해 과부의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는 과부에게 권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과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어떤 인간도 존중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과 끈질기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과부는 이 불공정한 재판관에게 계속해서 재판을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마주하는 끈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녀는 YMCA와 YWCA가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롤 모델입니다.



다섯째 날

존엄에 영향을 미치기

우리는 항상 낙담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를 가져오기 위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임무를 받았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 존엄성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존엄성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전세계 YMCA와 YWCA의 청년들에게 모든 소외된 청년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청년들은 존엄성과 존경심으로 대우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 디모데에게 말했듯이, 아무도 청년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편견과 차별이 없는 세상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가 만개하고 안정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의 청년들에게 자원이 계속 공급되어 오늘날의 악한 제도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의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생각해 볼 점

- 우리는 YMCA와 YWCA 일을 함에 있어 여전히 기도를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있나요?
-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 중심적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였나요?
- 우리는 21세기에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주창활동을 하면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나요?
- 오늘날 우리의 에큐메니컬 및 종교 간 운동에 있어서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YMCA나 YWCA로서 독자적으로 일하는 것에 만족하나요?
- 우리는 YMCA/YWCA로 일함에 있어 세계적인 평등(Equality)과 공평(Equity) 이슈, 우리의 비전, 업무를 놓고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하나요?

축복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선을 행하지 못한 곳에서 용서를 구하며 겸손하게 당신께 나아옵니다. 하나님, 우리 이웃을 사랑과 친절과 정의로 대하지 않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뜻을 행하고 당신 말씀의 인도를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둠의 권세에 맞서 지구에서 계속해서 당신의 사명과 목적을 수행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해 주소서. 신념, 성별, 연령, 카스트, 인종, 계급, 종교 그리고 정치 성향에 관계없이 모든 이들과 협력하여 인간 존엄성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사명을 수행하도록 우리의 글로벌 운동을 계획하여 주시고 만들어주십시오.

창의적 활동

1. 각자의 맥락에서 YMCA/YWCA의 비전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인간 존엄성의 수호가 우리의 의제에서 어떤 부분을 차지하는지 검토해 보세요. 함께하는 구성원들과 결과를 공유하고 운동 결과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해 보세요. 이 과정을 문서화하고 접근가능한 모든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당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전달해 보세요.
2. 불의한 재판관과 끈기 있는 과부의 비유에 나오는 인물들을 어떻게 시각적, 예술적 형태로 묘사할 수 있나요? 마찬가지로, 인간 존엄성에 대한 21세기의 반대자들을 묘사해 볼 수 있나요? 인간 존엄성을 옹호하기 위해 젊은이들이 발견되는 공간에 그래피티를 만들어 보세요.
3.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주어진 상황에 맞게 기도할 시간을 낼 수 있나요? 공동 및 개인 기도를 위해 어떻게 활용 가능한 플랫폼을 사용하여 이것을 전 세계와 공유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세상의 존엄성에 영향을 끼쳐보아요.

여섯째 날



일치에 영향을 미치기

STEVE CLAY



성경 본문

역대하 30:1-6, 10-13 (현대인의 성경)

¹ 히스기야왕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와 특별히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와 성전에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키자고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였다. ² 왕과 신하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들은 1월에 지키던 유월절을 2월에 지키기로 합의하였다. 이것은 그때까지 성결하게 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또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많이 모일 형편이 되지 않아 제때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³ (2절과 같음) ⁴ 왕과 백성들은 이렇게 하는 것을 좋게 여기고 ⁵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공포하여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지키는 것을 호소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이었다. ⁶ 왕의 명령에 따라서 사자들이 왕과 그 신하들의 회람 서신을 받아 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다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전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앗시리아 왕의 손에서 벗어나 살아 남은 우리에게 돌아오실 것입니다. ¹⁰ 사자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전 지역을 돌아다니고 또 스블론까지 갔으나 사람들은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였다. ¹¹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블론 지파 중에서 일부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왔다. ¹²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셨으므로 그들은 합심하여 여호와와 말씀에 따라 왕과 신하들이 명령한 것을 지키기로 다짐하였다. ¹³ 그래서 수많은 군중이 2월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여

요한복음 17:18-23 (현대인의 성경)

¹⁸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¹⁹ 그들을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이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기 위해서입니다. ²⁰ 나는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²¹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²²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²³ 나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십니다.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소서.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고 느끼거나 숨겨진 의제가 있는 것같은 프로젝트 팀의 일원이었던 적이 있습니까? 결과는 어땠나요? 팀이 기대했던 효과를 달성했습니까? 오늘의 주제는 "일치에 영향을 미치기"를 향한 우리의 기도를 위한 것입니다. 2030년과 2035년 세계YMCA와 세계YWCA 전략은 우리의 일치된 행동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성경해석

구약성경에서 유다 왕국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쟁은 주변 지역을 황폐화시켰고, 이웃 민족은 앗수르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의 백성이 연합하여 함께 모이기를 원했습니다. 그 부름은 단지 모호한 형태의 공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당면한 어려움에 대비할 수 있는 변혁적 영향력을 가져오기 위해서 백성들이 그들을 하나로 묶은 그 바탕을 기억하고 함께 일하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 구절인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 기도하신 유명한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인간의 나약함을 이해하고 인간의 이기심과 경쟁적인 속성이 예수님의 새로운 운동에 반대하는 공모를 꾸미고 그것이 자리를 잡기도 전에 무너뜨릴 것인지를 이해하며 미래를 내다보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섯째 날

일치에 영향을 미치기

그는 일치를 위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일치되기를, 이 일치가 세상에 강력한 표징이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징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적용

한번은 더 저렴한 항공권 가격때문에 회의 참석을 위해 하루 일찍 홍콩에 도착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영광스럽게도 그 국제 회의에 각 국가 연맹의 이사 대표로 참석하였습니다. 마음 한 구석에서 저는 '기독교성'이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 때 시점에서 나의 6년 동안의 활동 경험은 기껏해야 '혼란'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콜롬비아와 칠레에서 온 열정적인 가톨릭 자원봉사자 그룹과 함께 하룻밤 살레에서 숙박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라틴 아메리카 운동 내에서 획기적인 선교적 발전을 설명했습니다. 나는 '개신교 복음주의자'로 자랐고, 그 운동의 '영적 추진력'이 가톨릭 공동체 안에서 개척되고 있다는 생각이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내 선입견과 편견은 꾸준히 부서졌습니다. 저는 다양한 교단과 전통을 가진 전 세계 YMCA 및 YWCA 가족의 우정, 은혜, 믿음을 보고 놀랐습니다. 나는 스위스 하슬리베르그에서 우크라이나 정교회의 깊은 영성을 경험했고, 덴마크 오르후스에서 에큐메니칼 미사에 참여했고, 미국 실버베이 예배당에서 예언을 들었습니다. 나는 또한 다른 종교를 가졌거나 종교가 없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포용하라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세계YMCA(Vision 2030)와 세계YWCA(#-Goal2035)의 전략에 있어 우리가 기대한 정도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단결된 회원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YWCA와 YMCA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회원에게는 이것이 역사적 영감이 될 것이고 다른 회원은 그것을 살아있는 현실로 여겨질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관점이 있으나 세계 기도 주간에 참여하기로 선택한 우리들은 이를 살아있는 현실로 받아들이는 쪽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의 힘든 긴장감을 헤쳐 나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치를 이룰 수 있습니까?

21세기 YMCA와 YWCA의 힘은 이러한 운동을 일으킨 근간을 감추거나 없애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을 진정으로 환영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포용적인 기독교 공동체를 정의하고 창조하는 과정 자체가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에 찬 표현, 다양한 사회 내에서의 신앙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인식, 그리고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섬기려는 관대한 개방성은 분열되고 파편화된 세상에서 큰 울림을 줍니다.

일치는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능동적인 선택의 결과입니다. 선택을 할 때 우리는 극심한 차이와 잠재적인 갈등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YMCA는 1855년 파리에서 노예 문제와 성경의 탁월성에 대한 극심한 불일치 가운데서 결성되었습니다. 선배들의 정치적 또는 신학적 입장에 경악하게 되는 면도 있겠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심지어 그것을 통해서도, 세대를 거듭해 화합을 이루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성령께서는 우리 자신을 넘어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은혜, 연민, 사랑을 발전시키기 위해 그러한 차이를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포용성이 특징이지만 정의가 없는 포용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관점의 사람들, 심지어 박해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기 위한 포용이며,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인정하는 포용입니다.

목적의 일치만 만장일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온 백성을 나라의 축제에 초대했습니다. 이는 불확실한 시대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공동의 임무로 그들을 재결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식을 전한 사자들을 멸시하고 조롱했지만, 응답한 많은 군중들에게서 마음의 일치가 있었습니다. 하느님 앞에서의 이러한 목적의 일치는 이후에 벌어질 앗수르 왕의 예루살렘 포위 공격을 견디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섯째 날

일치에 영향을 미치기

일치 속에 은혜와 연민과 사랑이 담겨있지 않다면 우리는 현재와 최근의 식민주의, 아파르트헤이트, 원주민에 대한 억압, 그리고 전쟁 등의 파괴적인 정치적 유산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기독교 신앙이 착취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썼던 폭력적인 방법을 버려야 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길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은혜, 연민, 사랑이 없다면 현 시대의 사회학적, 신학적인 관점의 세계적인 차이는 우리 운동이 형성된 믿음에 기초를 둔 "일치"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영향을 주고 막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운동을 탄생시킨 믿음의 빛을 다시 밝히고, 일치된 행동을 방해하는 우리의 뿌리 깊은 편견을 버리며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떠한 해야 하는지 기도로 알려주셨던 그분의 사랑으로 그 빈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묵상해 볼 점

- 오늘의 주제에서 읽기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오늘의 주제가 타인에 대한 나의 견해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 나는 동료에게서 '좋은'을 찾나요, 아니면 '나쁨'을 찾나요?
- 내가 섬기는 사람들을 더 나은 방식으로 변화시키고 선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성령님께 내 성품의 어떤 면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 내가 속한 YWCA/YMCA에서 일치된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회복해야 하는 관계가 있나요? 사과를 해야 하는 관계가 있나요? 나의 언행에 대해 용서를 구해야 하는 관계가 있나요?

축복기도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에서 발췌)

창조적 활동

1.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관계나 팀을 생각해 보세요.
2. 연관된 각 개인에 대해 5개의 '포스트잇'에 5개의 긍정적인 자질을 적어 보세요.
3. 이 메모를 당신의 방에 붙이세요.
4. 하루 중 그 메모들을 보게 되는 순간에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긍정적인 자질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 보세요.

일곱째 날



연합예배

JENS CHRISTIAN KIRK



아래 순서지는 YWCA/YMCA가 올해의 세계기도주간 중이나 마지막에 '영향력을 위한 기도(Praying the Impact)'라는 주제에 따라 자체적으로 드리게 될 지역예배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00:00 **환영과 소개**

인도자는 참여하는 분들을 환영하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이 예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00:03 **여는 기도**

인도자: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함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다 함께: 그리고 또한 당신과 함께.

인도자: 이 날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날입니다.

다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00:04 **찬양 – 'BEAUTY FROM BROKENNESS' – GRAHAM KENDRICK**

예배 주제에 따라 이 찬양을 추천하였습니다. 다른 찬양을 선택해도 좋습니다.

www.ymca.int/week-of-prayer를 참고하여

다른 찬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00:08 **네 명의 인도자들:**

네 개의 성경본문(다양한 면을 대표하는 인도자들을 예배 참가자들 중에서 선정하십시오)
- 주중에 이 예배를 드리는 경우에는 해당 일의 성경 말씀을 읽어도 좋습니다.

본문 1: 창세기 1:26, 28

본문 2: 미가 6:8

본문 3: 요한복음 17, 21

본문 4: 누가복음 19, 1-8



00:12

희망, 영향력, 평화를 위한 기도

인도자: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인도자: 우리의 주님이시며 형제자매이신 예수님, 우리를 희망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다 함께: 우리를 행동하게 하시고, 책임과 정의로 이끄십시오.

인도자: 성령 하나님은 상함과 불의와 절망에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다 함께: 우리 머리에 기쁨과 복된 평화의 기름을 부어 주소서 아멘.

00:14

우리가 보는 희망 (예배로서의 창작 예술)

예배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 이 시간에는 창의적인 예술활동을 계획하십시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보는 희망'에 초점을 맞춘 뭉타주, 묵상, 시 또는 춤을 기획해 보십시오.

00:20

설교

회원 YMCA 지도자나 목사님께 기도주간에서 나온 성경본문을 사용하여 '영향력을 위한 기도' 주제에 맞는 설교를 요청하십시오.

00:30

나라를 위한 기도 – 찬양의 벽

이 시간에는 기악이 연주됩니다. 포스트잇 부착용 보드, 종이 및 택 또는 분필 보드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 인도자는 다음과 같은 말로 이 모임을 시작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짧게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여러분을 인도하겠습니다.

- 마음과 정신을 편안히 하고 잠시 눈을 감고 침묵 속에서 묵상하십시오. (잠시 정지)
주변의 방해되는 요소들을 기록하고 인식하십시오(잠시 정지) 이 예배 중에 보고 들은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십시오(잠시 정지)
성경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설교를 묵상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희망에 불을 붙이신 방법을 적어 볼 것을 권합니다. 또한 현재의 갈등과 불의 속에서 나타나기를 바라는 평화와 정의의 영향에 대해 미리 감사를 포함시다. '신앙으로 우리는 _____의 분쟁에 평화로운 해결을 가져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_____에서 _____을(를) 종식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00:37

**찬양 – ‘FOR EVERYONE BORN’ – SHIRLEY ERENA MURRAY/
DANIEL CHARLES DAMON**

예배의 주제에 맞추어 이 찬양을 제안하였습니다. 다른 찬양을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그럴 경우 정의와 평화에 불을 붙이는 내용의 찬양을 선택하십시오. 다음 링크에서 추천 찬양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ymca.int/week-of-prayer

00:42

주기도문

다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00:44

축도 – 민수기 6: 24-26

인도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은혜와 자비로 여러분에게 비추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은총과 평화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아멘

00: 45

마침



감사의 글

올해의 세계 기도주간 책자의 제작을 위해 수고해주신 집필 팀과 번역가를 비롯한 아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니 그레츠너 (세계YMCA 콘텐츠 및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매니저)

클라우디아 쿤 (Signs of Hope 사무총장, 독일YMCA)

다니엘라 젤라야 라우달레스 (프로젝트 전문가, 세계YWCA)

도리 고먼 목사 (미국 미들 테네시 YMCA 목사)

던컨 초우드허리 (Governance 매니저, 세계YMCA)

옌스 크리스찬 커크 (Committee on Christianity & Spirituality 위원 및
전 덴마크 YMCA/YWCA 부회장)

존 필립스 (세계 YMCA 커뮤니케이션 이사)

라빈 이말리 (커뮤니케이션 책임자, 아프리카YMCA연맹 및 직원배치, 세계YMCA)

니르말라 구릉 (Rise Up! 연구위원, 아시아퍼시픽 리더십 이니셔티브, 세계YWCA)

은나에토 온우주룸바 (영국 YMCA 노스 스탠퍼드셔 목사)

무리엘 오레빌로-몬테네그로 박사 (신학자 겸 코디네이터, Interfaith Cooperation Forum,
APAY, 홍콩)

레베카 산기타 다니엘 (인도 신학자, World YWCA에 장기기고자)

솔로무지 마부자 (국가 헌법 위원회 의장, 남아프리카 공화국YMCA 전 회장)

스티브 클레이 (CEO, YMCA Black Country Group, 영국)

수치 가우어 박사 (세계 협력국 국장, 세계YWCA)

성경 읽기 계획: 에큐메니칼 성경읽기 그룹 (Ökumenische Arbeitsgemeinschaft für Bibellesen – ÖAB)

후원 : Norwegian Church Aid (NCA)

스페인어 번역 : 마누엘 쿼테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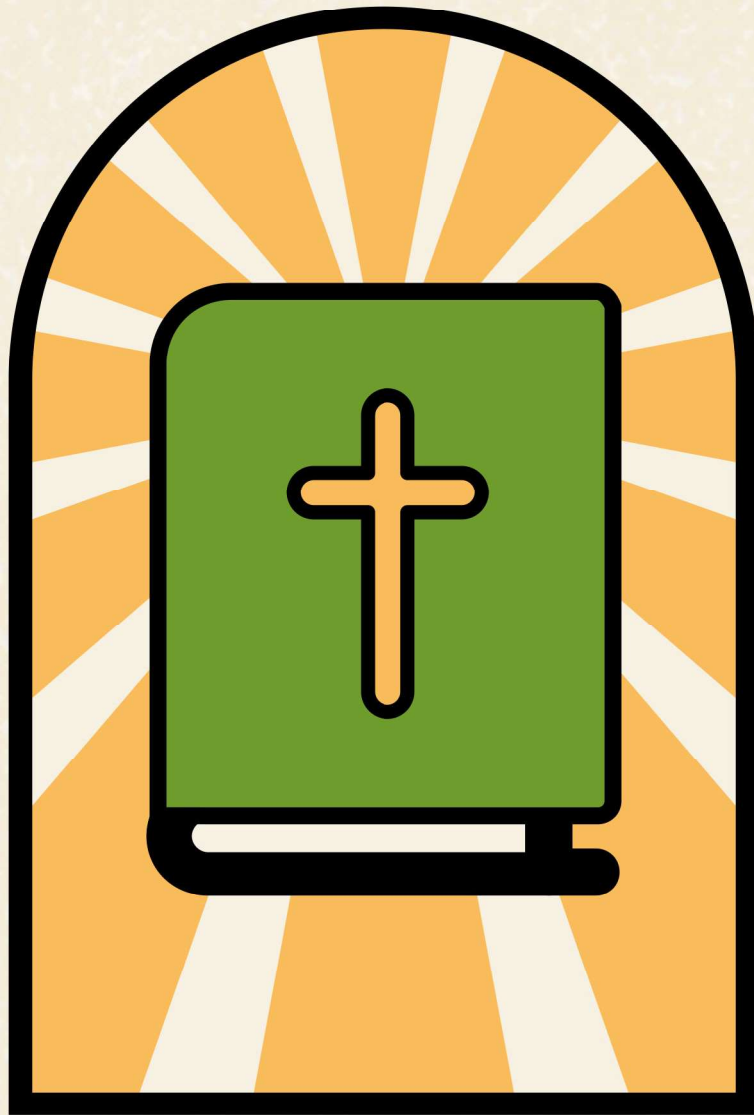
프랑스어 번역 : 장-프란시스 델틸

디자인 : 조슈아 헤이스팅스(브랜드 및 디자인 관리자, 잉글랜드&웨일즈YMCA)

고지 사항: 이 책자에 기고한 다양한 저자들의 견해가 반드시 World YWCA 또는 World YMCA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책자에 포함된 일러스트는 세계YWCA – 세계YMCA 기도주간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3



성경 읽기 계획



2023

성경 읽기 계획

JANUARY 1월	
1	시편 8
2	창세기 1,1-13
3	창세기 1,14-25
4	창세기 1,26-2,4a
5	창세기 2,4b-17
6	시편 72
7	창세기 2,18-25
8	시편 71
9	창세기 3,1-13
10	창세기 3,14-24
11	창세기 4,1-16
12	창세기 4,17-26
13	창세기 6,1-4
14	창세기 6,5-22
15	시편 105,1-15
16	창세기 7,1-16
17	창세기 7,17-24
18	창세기 8,1-12
19	창세기 8,13-22
20	창세기 9,1-17
21	창세기 9,18-28
22	시편 105,16-45
23	창세기 11,1-9
24	창세기 11,27-12,9
25	창세기 12,10-20
26	창세기 13,1-18
27	창세기 14,1-16
28	창세기 14,17-24
29	시편 40
30	창세기 15,1-21
31	창세기 16,1-16

FEBRUARY 2월	
1	창세기 17,1-14
2	창세기 17,15-27
3	창세기 18,1-15
4	창세기 18,16-33
5	시편 62
6	창세기 19,1-14
7	창세기 19,15-29
8	창세기 19,30-38
9	창세기 21,1-21
10	창세기 22,1-19
11	창세기 23,1-20
12	시편 61
13	로마서 1,1-7
14	로마서 1,8-15
15	로마서 1,16-17
16	로마서 1,18-32
17	로마서 2,1-16
18	로마서 2,17-29
19	시편 60
20	로마서 3,1-8
21	로마서 3,9-20
22	로마서 3,21-26
23	로마서 3,27-31
24	로마서 4,1-12
25	로마서 4,13-25
26	시편 64
27	로마서 5,1-5
28	로마서 5,6-11

MARCH 3월	
1	로마서 5,12-21
2	로마서 6,1-11
3	로마서 6,12-23
4	로마서 7,1-6
5	시편 25
6	로마서 7,7-13
7	로마서 7,14-25
8	로마서 8,1-11
9	로마서 8,12-17
10	로마서 8,18-25
11	로마서 8,26-30
12	시편 10
13	로마서 8,31-39
14	로마서 9,1-5
15	로마서 9,6-13
16	로마서 9,14-29
17	로마서 9,30-10,4
18	로마서 10,16-21
19	시편 84
20	로마서 10,16-21
21	로마서 11,1-10
22	로마서 11,11-16
23	로마서 11,17-24
24	로마서 11,25-32
25	로마서 11,33-36
26	시편 69,1-16
27	마태복음 26,1-16
28	마태복음 26,17-30
29	마태복음 26,31-35
30	마태복음 26,36-46
31	마태복음 26,47-56



2023

성경 읽기 계획

APRIL 4월	
1	마태복음 26,57-68
2	시편 69,17-37
3	마태복음 26,69-75
4	마태복음 27,1-14
5	마태복음 27,15-30
6	마태복음 27,31-44
7	마태복음 27,45-56
8	마태복음 27,57-66
9	마태복음 28,1-10
10	마태복음 28,11-20
11	로마서 12,1-8
12	로마서 12,9-16
13	로마서 12,17-21
14	로마서 13,1-7
15	로마서 13,8-14
16	시편 116
17	로마서 14,1-12
18	로마서 14,13-23
19	로마서 15,1-6
20	로마서 15,7-13
21	로마서 15,14-21
22	로마서 15,22-23
23	시편 23
24	로마서 16,1-16
25	로마서 16, 17-27
26	잠언 1,1-7
27	잠언 1,8-19
28	잠언 1,20-33
29	잠언 2,1-22
30	시편 100

MAY 5월	
1	잠언 3,1-12
2	잠언 3,13-26
3	잠언 3,27-35
4	잠언 4,10-19
5	잠언 4,20-27
6	잠언 5,1-23
7	시편 108
8	잠언 6,6-11
9	잠언 6,12-19
10	잠언 7,1-27
11	잠언 8,1-21
12	잠언 8,22-36
13	잠언 9,1-18
14	시편 111
15	빌립보서 1,1-11
16	빌립보서 1,12-18a
17	빌립보서 1,18b-26
18	시편 111
19	빌립보서 1,27-2,4
20	빌립보서 2,5-11
21	시편 110
22	빌립보서 2,12-18
23	빌립보서 2,19-30
24	빌립보서 3,1-11
25	빌립보서 3,12-21
26	빌립보서 4,1-9
27	빌립보서 4.10-23
28	시편 118,1-14
29	시편 118,15-29
30	창세기 24,1-28
31	창세기 24,29-49

JUNE 6월	
1	창세기 24,50-67
2	창세기 25,19-34
3	창세기 27,1-29
4	시편 113
5	창세기 27,30-40
6	창세기 27,41-28,9
7	창세기 28,10-22
8	창세기 29,1-14a
9	창세기 29,14b-30
10	창세기 31,1-7,14-32
11	시편 34
12	창세기 31,33-54
13	창세기 32,1-22
14	창세기 32,23-33
15	창세기 33,1-20
16	창세기 37,1-11
17	창세기 37,12-36
18	시편 4
19	창세기 39,1-23
20	창세기 40,1-23
21	창세기 41,1-36
22	창세기 41,37-57
23	창세기 42,1-28
24	창세기 42,29-38
25	시편 103
26	창세기 43,1-14
27	창세기 43,15-34
28	창세기 44,1-34
29	창세기 45,1-24
30	창세기 45,25-46,7



2023

성경 읽기 계획

JULY 7월	
1	창세기 46,28-34
2	시편 77
3	창세기 47,1-12
4	창세기 47,27-31
5	창세기 48, 1-22
6	창세기 49,1-28
7	창세기 49,29-50,14
8	창세기 50,15-26
9	시편 101
10	마태복음 4,18-22
11	마태복음 4,23-25
12	마태복음 5,1-12
13	마태복음 5,13-20
14	마태복음 5,21-26
15	마태복음 5,27-32
16	시편 82
17	마태복음 5,33-37
18	마태복음 5,38-48
19	마태복음 6,1-4
20	마태복음 6,5-15
21	마태복음 6,16-18
22	마태복음 6,19-23
23	시편 106,1-23
24	마태복음 6,24-34
25	마태복음 7,1-6
26	마태복음 7,7-11
27	마태복음 7,12-23
28	마태복음 7,24-29
29	마태복음 8,1-4
30	시편 106,24-48
31	마태복음 8,5-13

AUGUST 8월	
1	마태복음 8,14-17
2	마태복음 8,18-22
3	마태복음 8,23-27
4	마태복음 8,28-34
5	마태복음 9,1-8
6	시편 63
7	마태복음 9,9-13
8	마태복음 9,14-17
9	마태복음 9,18-26
10	마태복음 9,27-34
11	마태복음 9,35-10,4
12	마태복음 10,5-15
13	시편 78,1-31
14	마태복음 10,16-26a
15	마태복음 10,26b-33
16	마태복음 10,34-39
17	마태복음 10,40-42
18	마태복음 11,1-19
19	마태복음 11,20-24
20	시편 78,32-55
21	마태복음 11,25-30
22	마태복음 12,1-14
23	마태복음 12,15-21
24	마태복음 12,22-37
25	마태복음 12,38-45
26	마태복음 12,46-50
27	시편 78,56-72
28	마태복음 13,1-9.18-23
29	마태복음 13,10-17
30	마태복음 13,24-30.36-43
31	마태복음 13,31-35

SEPTEMBER 9월	
1	마태복음 13,44-46
2	마태복음 13,47-52
3	시편 112
4	마태복음 13,53-58
5	마태복음 14,1-12
6	마태복음 14,13-2
7	마태복음 14,22-36
8	마태복음 15,1-20
9	마태복음 15,21-28
10	시편 16
11	마태복음 15,29-39
12	마태복음 16,1-12
13	마태복음 16,13-23
14	마태복음 16,24-28
15	마태복음 17,1-13
16	마태복음 17,14-21
17	시편 79
18	마태복음 17,22-27
19	마태복음 18,1-9
20	마태복음 18,10-14
21	마태복음 18,15-20
22	마태복음 18,21-35
23	마태복음 19,1-12
24	시편 114
25	마태복음 19,13-15
26	마태복음 19,16-26
27	마태복음 19,27-30
28	마태복음 20,1-16
29	마태복음 20,17-28
30	마태복음 20,29-34
31	마태복음 26,47-56



2023

성경 읽기 계획

OCTOBER 10월	
1	시편 104
2	마태복음 21,1-11
3	마태복음 21,12-17
4	마태복음 21,18-22
5	마태복음 21,23-27
6	마태복음 21,28-32
7	마태복음 21,33-46
8	시편 119,1-8
9	마태복음 22,1-14
10	마태복음 22,15-22
11	마태복음 22,23-33
12	마태복음 22,34-46
13	마태복음 23,1-22
14	마태복음 23,23-33
15	시편 119,9-16
16	야고보서 1,1-12
17	야고보서 1,13-18
18	야고보서 1,19-27
19	야고보서 2,1-13
20	야고보서 2,14-26
21	야고보서 3,1-12
22	시편 119,17-24
23	야고보서 3,13-18
24	야고보서 4,1-12
25	야고보서 4,13-17
26	야고보서 5,1-6
27	야고보서 5,7-12
28	야고보서 5,13-20
29	시편 19
30	욥기 1,1-12
31	욥기 1,13-22

NOVEMBER 11월	
1	욥기 2,1-13
2	욥기 3,1-26
3	욥기 4,1-21
4	욥기 5,17-27
5	시편 22,1-22
6	욥기 6,1-10.24-30
7	욥기 7,7-21
8	욥기 8,1-22
9	욥기 9,1-15.32-35
10	욥기 11,1-20
11	욥기 12,1-6;14,1-12
12	시편 22,23-32
13	욥기 19,21-29
14	욥기 31,16-40
15	욥기 40,1-5
16	욥기 40,6-32
17	욥기 42,1-6
18	욥기 42,7-17
19	시편 70
20	유다서 1-16
21	유다서 7-25
22	마태복음 24,1-14
23	마태복음 24,5-28
24	마태복음 24,29-31
25	마태복음 24,32-44
26	시편 126
27	마태복음 24,45-51
28	마태복음 25,1-13
29	마태복음 25,14-30
30	마태복음 25,31-46

DECEMBER 12월	
1	이사야 40,1-11
2	이사야 40,12-31
3	시편 117
4	이사야 41,8-20
5	이사야 42,1-9
6	이사야 43,1-7
7	이사야 43,8-13
8	이사야 43,14-28
9	이사야 44,1-5
10	시편 80
11	이사야 44,6-20
12	이사야 44,21-28
13	이사야 45,1-8
14	이사야 45,9-17
15	이사야 45,18-25
16	이사야 46,1-13
17	시편 85
18	이사야 49,1-6
19	이사야 49,7-17
20	이사야 50,4-11
21	이사야 51,1-8
22	이사야 51,9-16
23	이사야 52,1-12
24	시편 115
25	누가복음 1,46-55
26	누가복음 2,29-32
27	이사야 52,13-53,5
28	이사야 53,6-12
29	이사야 54,1-10
30	이사야 55,1-5
31	이사야 55,6-13



Chemin de Mouille-Galand 1, 1214 Vernier
Geneva– Switzerland

www.ymca.int

Twitter & Instagram: @WorldYMCA

Facebook: /ymcas



L'Ancienne-Route 16, 1218 Le Grand-Saconnex
Geneva– Switzerland

www.worldywca.org

Twitter & Instagram: @worldywca

Facebook: /worldywca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This publication may be redistributed non-commercially in any media, unchanged and in whole with credit given to World YMCA and World YWCA. 2022

Published by World YMCA – World YWCA

A product of World YMCA and World YWCA 2022

영한번역: 최윤미